

조선시대 雪嶽山 遊山記의 개괄적 검토

허 남 옥*

<目次>

I. 서론	III. 설악산을 이해하는 네 개의 키워드
II. 유산기를 통한 설악산 유람의 재구성	IV. 결론

<국문 초록>

산을 유람하면서 만나는 경치와 자연에서 촉발된 느낌 등을 기록한 글이 遊山記이다. 조선시대에 설악산 유산기가 지어진 시기는 대체로 15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이다. 유산기가 집중적으로 창작된 시기는 17세기 후반부터인데, 이것은 金昌翁이 설악산에 거처를 마련한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설악산 유산기에서 김창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설악산을 찾은 사람은 주로 봄과 가을을 이용하였다. 겨울 산행은 찾을 수 없고, 여름 산행은 두 편만 보인다. 탐승경로는 크게 김수증 및 김창흠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이전에는 설악산 외곽인 한계령 또는 미시령을 경유하였다. 그런데 김수증과 김창흠 이후엔 현재 설악산 탐방코스과 같은 경로다. 내설악을 경유할 경우 백담사의 전신인 선구사와 심원사에서 짐을 풀었다. 백담사가 창건되기 전에는 백담사 건너편에 있던 민가에서 숙박을 했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영시암과 오세암, 그리고 봉정암에서 반드시 묵어야 했다. 외설악을 방문한 사람들이 즐겨 찾던 곳은 신흥사다. 신흥사에서 울산바위로 가다가 내원암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다. 설악산

은 몇 개의 평어로 수렴할 수 있다. 隱으로 설명하고, 聖으로 그리기도 한다. 奇로, 혹은 靈으로 설악산의 특징을 뽑아내기도 한다. 이밖에도 설악산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있지만 이 네 가지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주제어】 遊山記, 雪嶽山, 金昌翁, 隱, 聖, 奇, 靈

I. 서론

산을 유람하면서 만나는 경치와 자연에서 촉발된 느낌 등을 기록한 글이 유산기이다. 그동안 유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선으로 검토되어 왔다. 먼저 산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산은 神이 살고 있는 신비한 장소가 아닌 인간이 살고 있는 장소, 아름다운 경관으로 詩興의 원천이 되는 곳, 단순한 探勝의 대상이 아니라 道體가 깃들인 곳으로 이를 통해 심신을 수양하는 장소, 한 지방의 상징적 존재이자 민족의 상징적 존재라는 설명은 산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¹⁾ 이후 특정 시기와 특정 계열을 중심으로 산수유기를 분석하기도 했으며,²⁾ 유산기에 나타난 士意識에 주목하기도 하였고,³⁾ 한 지역의 특정한 산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도 하면서⁴⁾ 연구의 지평을 넓혀왔다.

1) 이혜순 외 3인,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 집문당, 1997. 이 책은 유산기의 성립과 배경뿐만 아니라 금강산유기·지리산유기·청량산소백산유기·묘향산유기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2) 안득용,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山水遊記 研究 : 農巖 金昌協과 三淵 金昌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農淵 山水遊記 研究」, 『동양한문학연구』 22, 동양한학회, 2006.; 「16세기 후반 영남 문인의 산수유기-芝山 曹好益 산수유기에 나타난 자연인식과 형상화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5, 민족어문학회, 2007.

3) 최석기 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지리산 유람과 사의식」,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2007.

4) 김기영, 「관악산유산록의 작품 실상과 교육적 가치」, 『어문연구』 38, 어문

* 강원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heonw@kangwon.ac.kr

지금까지 주된 연구의 대상이 된 산은 금강산, 지리산, 청량산, 소백산, 묘향산 등이다. 이 산들이 연구된 까닭은 지명도가 있는 유명한 산이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자료가 비교적 충분하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렇다면 설악산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까닭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설악산이 명산이기는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여타 산들에 비해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기도 한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이러한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설악산 유산기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가 목적이다. 누가, 언제, 누구와 함께 설악산을 찾았으며, 어떤 목적을 갖고 유람하였는지, 등반 코스는 어떠한지 등과 같은 기초적인 항목들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설악산의 진면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유산기를 통한 설악산 유람의 재구성

1. 자료와 창작시기

한문의 문체를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중국 육조시대 梁나라 태자였던 蕭統의 『文選』부터 시작한 분류는 130여 개로 세분화하기도 한다. 다양한 한문의 문체 가운데 雜記類가 있는데, 유산기는 여기에 속한다.

유산기는 대부분 ‘~記’ 형식을 취하지만, 가끔 ‘~錄’이란 제목을 갖기

연구학회, 2002.; 박영민, 「18세기 청량산 유산기 연구」, 『한자한문연구』 1,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2005.; 정치영,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I』, 민속원, 2007.; 강정화, 「동아시아의 名山과 名山文化 ; 지리산 유산기에 나타난 조선조 지식인의 산수인식」, 『남명학연구』 26,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노규호, 「한국 遊山記의 계보와 두타산 遊記의 미학」, 『우리문학연구』 28, 우리문화회, 2009.; 김선희, 「유산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삼각산 여행의 시공간적 특성」, 『문화역사지리』 21,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9.

도 한다. 설악산 유산기도 예외는 아니며, 이러한 두 가지 제목의 작품이 중심을 이룬다. 본고에서는 작가가 여행 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경치를 묘사했으나, 문체로 구분할 때 잡기류가 아닌 작품이라도 설악산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면 포함시켰다.

그동안 발굴된 설악산의 여행을 기록한 자료들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유람 시기	작자	유산기 제목	수록문헌
1485	南孝溫	遊金剛山記	秋江集
1575	文益成	遊寒溪錄	玉洞集
1590	柳夢寅	題紺坡崔有海號副墨遊金剛山錄後	於于集
1632	李時省	送豐安君趙公赴杆城郡序	騏峰集
1657	俞瑒	關東秋巡錄	楸潭集
1660	許穆	三陟紀行	眉叟集
1672	尹鏞	楓岳錄	白湖全書
1679	金壽增	遊曲淵記	谷雲集
1691	金壽增	寒溪山記	谷雲集
1696	金昌協	東征記	農巖集
1698	金壽增	遊曲淵記	谷雲集
1705	金昌翁	雪岳日記	三淵集拾遺
1708	趙德鄰	關東續錄	玉川集
1709	任適	東遊日記	老隱集
1709	洪泰猷	遊雪嶽記	耐齋集
1709	金棟	游楓嶽記	儉齋集
1711	金昌翁	遊鳳頂記	三淵集拾遺
1711	金昌翁	東遊小記	三淵集
1712	金昌緝	東遊記	圃陰集
1728	柳敬時	遊金剛山錄	涵碧堂集
1739	朴聖源	寒雪錄	臥遊錄
1740	蔡之洪	東征記	鳳巖集

유람 시기	작자	유산기 제목	수록문헌
1740	權 燮	寒溪雪嶽遺恨記	遊行錄
1742	鄭基安	遊楓岳錄	晚慕遺稿
1753	李福源	雪嶽往還日記	雙溪遺稿
1760	安錫徹	雪岳記	雪橋集
1761	安錫徹	東行記	雪橋集
1764	작자미상	壯遊錄	壯遊錄
1779	丁範祖	雪嶽記	海左先生文集
1787	金夢華	遊雪嶽錄	七巖文集
1791	李東沆	遲菴海山錄	見聞草
1815	朴允默	題金剛錄卷首	存齋集
1829	權用正	雪嶽內記	小遊雜著
1830	金錦園	湖東西洛記	錦園堂集
미상	李義肅	萬景臺記 水簾洞記 大乘嶺記 永矢庵記 曲百潭記 寒溪瀑記	頤齋集

위의 도표에서 열거한 자료의 목록은 현재까지 각종 문헌에서 확인한 자료들이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자료들이 있을 가능성은 다분하기에 자료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제목만 보면 금강산을 유람하거나 강원도 일대를 여행한 기록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순수하게 설악산만을 유람하고 작성한 유산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제목에 설악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설악산을 경유하면서 설악산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것은 모두 포함시켰다. 또한 도표의 마지막에 수록된 李義肅의 일련의 작품들은 유산기의 형식을 갖추진 않았지만 작품들을 연결하면 설악산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유산기에 포함시

켰으며, 20세기에 들어와 작성된 유산기는 제외시켰다.

위의 도표에서 나타나듯이 작품이 지어진 시기는 15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이다. 유산기가 집중적으로 창작된 시기는 17세기 후반부터인데, 이것은 金昌翁이 설악산에 거처를 마련한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김창흡은 처음에 한계령 부근에 있다가 백담계곡으로 거처를 옮겼는데,⁵⁾ 김창흡의 거주지 이동은 유산기의 내용을 변화시켰다. 이전의 유산기가 한계령과 미시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김창흡이 백담계곡으로 이동하면서 이후의 여행자들은 백담계곡을 경유하여 대청봉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설악산 유산기에서 김창흡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2. 유산기의 지은이

설악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생활의 공간이기도 하다. 설악산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설악산에 의지하여 생계를 해결하였다. 땅이 없고 관리의 수탈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숨어살기도 했다. 한계령 주변과 백담사 일대는 이들의 생활공간이었고, 이곳을 거점으로 설악산 이곳저곳을 누볐다. 그러므로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설악산에 대해 남들보다 훨씬 상세하게 알고 있었고, 유산기의 작자에게 중요한 소재를 제공하였다. 김수증은 「寒溪山記」에서 인제에 살고 있던 驛吏 金世民이 들려준 이야기를 길게 인용하면서 설악산의 뛰어난 곳을 설명한다. “驛吏 金世民이 찾아와 인사를 하였다. 그 사람은 상세하고도 분명하여 한계산의 여러 勝景을 말하는 것이 매우 자세하다. 玉流泉·阿次莫洞·白雲菴洞은 모두 그가 蓼을 켤 때 다닌 곳이다. (중략) 남쪽으로는 上筆如峯이 있고, 서쪽으로는 笠帽峯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上雪嶽이 10여리 안에 있다. 이곳에 오르면 東海를 볼 수 있다고 한다.”⁶⁾ 김세민은 역리이면서

5) 김창흡의 설악산 은거에 대해서는 이경수, 「삼연 김창흡의 설악산 은둔과 한 시표현」(『강원문화연구』 26,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7.)에 자세하다.

삼을 캐는 일도 겸하였기에 설악산 가운데 지금의 서북주릉(예전에는 이곳을 한계라 불렀다) 구석구석을 훤히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權用正의 『雪嶽內記』에는 당시 그곳에 거주하던 마을 사람의 입을 빌려 지금의 십이선녀탕 계곡을 자세하게 묘사한 부분이 나온다.

支離谷을 지나다가 옥소리 같은 물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점점 커지고 색은 점점 드러나니 백옥과 눈처럼 상쾌하다. 지역 사람이 말하길, “탕수폭포입니다. 폭포는 모두 5개인데, 어떤 것은 누워있고, 어떤 것은 곧으며, 어떤 것은 꺾여지면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못은 모두 10개인데, 향아리·병·가마솥·술잔을 깨어 놓은 것 같습니다. 폭포는 네 번째가 가장 뛰어나고, 연못은 여섯 번째가 가장 뛰어납니다. 여섯 번째 연못 위가 바로 네 번째 폭포 아래입니다. 돌벼랑은 반쯤 이지러진 달 같은데, 흐르는 물을 막아, 급히 흐르며 부서지고 수많은 실이 어지러이 모입니다. 연못은 받아들이지만 담아둘 수 없고, 아무리 해도 펴 수 없어 울부짖습니다. 맹렬한 나머지 물결은 사방으로 나가 허공에서 밝은 꽃이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盪水洞입니다. 첫 번째 폭포 옆에 龍穴이 있는데, 지역 사람들은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냅니다.”라고 하였다.⁶⁾

인제 남교리에 살던 마을 사람은 한계산 자락에 있는 십이선녀탕 계곡의 승경에 대해 그림을 펼쳐 보여주듯 묘사하였고, 권용정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마을 사람의 입을 통한 직설화법으로 인해 설악산의 모습이 생동감 있게 독자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설악산 자락에 살던 사람들은 글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잊고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인용되어 전해지고, 그들이 다니던

6) 金壽增, 『谷雲集』卷4, 「寒溪山記」, “驛吏金世民來見. 其人詳明, 能言寒溪諸勝境甚悉. 玉流泉阿次莫洞白雲菴洞, 皆渠採蓼時所歷踐. … 南有上筆如峯, 西有笠帽峯, 北則上雪嶽在十許里內, 登之可望東海云.”

7) 權用正, 『小遊雜著』, 「雪嶽內記」, “過支理谷, 始聞水聲瑤然聲且漸壯, 色且漸露, 而玉雪洒然. 土人曰, 盪水瀑也. 瀑凡五, 或偃或直或拗而仄. 潭凡十, 瓮罍釜鍾壘如也. 瀑最於第四, 潭最於第六. 六之上即四之下也. 石壁半關月, 規偃然急流瑒碎, 萬縷棼集. 潭受之而不能容, 迫窘詰屈鳴號. 猛力餘波四出爲空花瑩瑩然. 此所謂盪水. 第一瀑有龍穴, 土人於此祈雨云.”

길은 나중에 설악산을 탐방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코스가 되었다. 물론 설악산이 품고 있던 절에서 도를 닦던 스님들도 마찬가지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스님들은 산행의 안내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수발을 들며 탐방객들을 어깨로 실어 날라야 했다. 그러므로 유산기는 글을 지을 수 있는 사대부들의 몫이기도 하지만 현지 주민들과 스님들의 몫이기도 하다. 유산기를 남긴 사대부들 가운데는 金昌翁과 인척관계, 또는 사승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김창흡의 큰아버지인 金壽增, 둘째 형인 金昌協, 동생인 金昌緝의 글은 설악산 유산기의 앞 시대를 장식한다. 며칠씩 걸리는 설악산을 자기 마음대로 유람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설악산을 끼고 있는 지역의 관리나 강원도와 관련된 벼슬을 하는 사람이 유산기의 주요한 저자이다. 文益成, 丁範祖, 金夢華는 양양부사 시절에 설악산을 유람하는 행운을 얻을 수 있었다. 김수증이 대승령을 넘을 때 동행했던 그의 아들은 인제군수였으며, 兪場은 강원감사였다. 예외적으로 金錦園은 아버지를 졸라서 남장을 하고 설악산을 탐방한 후 글을 남겼다.

설악산을 유람하고 글을 남긴 이들은 몇 살 때 이곳을 찾았을까. 현재까지 발굴된 유산기의 저자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로 설악산을 찾은 이는 김금원으로 당시 14살이었다. 김수증은 75살에 대승폭포를 구경하고 대승령을 넘은 후 백담계곡으로 향한 일정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현재 확인 가능한 유산기 가운데 가장 연장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3. 유람 시기와 경로

옛 사람들은 주로 봄과 가을에 설악산을 찾았다. 정범조는 3월에 산을 올랐다. 권용정, 박성원, 이동항, 이복원이 유람한 시기는 4월이었다. 김유는 5월에 방문했으며, 안석경은 4월에 한 번 왔다가 5월에 다시 찾았다. 봄과 가을을 이용하여 설악산을 찾은 이유는 그때가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유람의 편의성 때문이

었다. 김수증은 2월에 대승령을 넘었다. 지금의 달력체계로는 봄에 해당되는 3월이다. 설악산이라 이름 붙은 까닭이 눈이 일찍 내리고 늦게 녹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듯⁸⁾ 김수증의 「遊曲淵記」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과 얼음이 등장한다.

남쪽으로 늘어선 산봉우리들을 보니 갑자기 탁 트이고, 드러난 낭떠러지와 골짜기에는 얼음과 눈이 하얗다. (중략) 다시 산등성으로 5리쯤 올라가 산 정상에 이르렀다. 산의 북쪽에 눈이 한 자 정도 쌓여 있었다. (중략) 남에서 내려 내려가자니 산비탈은 높고 위험하며 얼음과 눈이 복사뼈까지 빠져 발붙이기가 어려웠다.⁹⁾

늦봄이지만 잔설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눈과 얼음이 여전히 쌓인 설악산을 당시에 오르는 것은 많은 위험을 동반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계절적으로 위의 작품보다 빠른 시기에 설악산을 찾아 쓴 유람기는 보이지 않는다.

무더운 여름도 되도록 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산기 가운데 여름에 설악산을 찾은 사람은 두 사람이 확인된다. 文益成은 「遊寒溪錄」에서 “장마비가 그치니, 얼은 구름이 사방에서 걷혀 寒溪에 이르기도 전에 맑은 흥취가 일어난다.”¹⁰⁾고 들뜬 마음을 여과 없이 묘사했다. 그의 여정은 한계령을 넘어 대승폭포를 구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 산행이 가능했을 것이다. 任適은 유람 도중 비를 만나 어쩔 수없이 이틀 동안 오세암에서 머물러야 했다.

김몽화와 김창준은 9월에 설악산을 찾았다. 설악산 주인인 김창흡도

8) 成海應, 『研經齋全集』 卷51, 「記關東山水」, “雪嶽極高峻, 八月始雪, 至夏始消, 名雪嶽.”

9) 金壽增, 『谷雲集』 卷4, 「遊曲淵記」, “南望列岫, 突兀軒豁, 呈露崖谷, 冰雪皓然. … 轉上山脊五里許, 至山巔. 山之北, 雪深一尺. … 去輿而下, 山坂峻急, 冰雪沒踝, 不能著足.”

10) 文益成, 『玉洞集』 卷1, 「遊寒溪錄」, “況積雨新霽, 織雲四捲, 未到寒溪, 逸興先飛.”

9월에 봉정암을 갔다 오고 「遊鳳頂記」를 남겼다.

(아들은) 달은 밝아지고 단풍은 더욱 붉어지려 하니 유람을 가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나는 쌓인 피로 때문에 쉬고 싶어서, 도무지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이에 음력 9월 8일에 두 사람이 연달아 신발을 수리하더니, 深源寺 僧釋閑을 길잡이로 삼고 중 斗發이는 옷과 이불을 꾸러 따랐다. 이때 여러 날 온 비는 그다지 겹 여지가 없고 강한 바람과 불그스름한 구름이 마치 눈을 뿌릴 듯하여 함께 가기가 주저되어 미루고자 하였으나, 그들을 따르기로 했다.¹¹⁾

설악산은 산세가 험할 뿐만 아니라 규모도 웅장하리만치 광대하다. 또한 깊은 산속이라 날씨도 일정하지 않아 비라도 만나면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설악산 유람은 당시에 많은 시간을 요구하였다. 한계령을 따라와서 대승폭포만 보거나, 미시령을 경유할 때는 대부분 이틀 정도 걸렸다. 그러나 백담계곡을 경유하거나, 비선대에서 마등령을 넘어 오세암이나 봉정암을 찾는 경우에는 4일에서 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안석경은 외설악 신흥사에서 출발하여 마등령을 넘어 오세암을 찾았다. 대청봉을 오른 후 백담계곡으로 나왔다가 한계령으로 향하여 대승폭포를 보고 원통으로 돌아왔는데, 걸린 시간은 7일이었다. 그는 「後雪岳記」에서 “내가 산에 들어온 것은 겨우 7일이고 본 것은 많지 않으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만약 자세하게 보려고 한다면 마땅히 30여일을 보내야한다.”¹²⁾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자신이 가보지 못한 곳을 자세하게 열거했다.

다음으로 설악산 유람의 경로와 경유지를 살펴본다.

현재까지 발굴된 유산기를 분석해보면 탐승경로는 크게 김수증 및 김

11) 金昌翁, 『三淵集·拾遺』 卷23, 「遊鳳頂記」, “亦欲趁月生明, 與楓益爛赤而振策. 余則積疲思息, 了無偕往之意矣. 乃季秋初八日, 兩人者聯翩理屐, 以深源僧釋閑爲嚮導, 奴斗發者襍被以從. 時宿雨未甚開霽, 勁風彤雲, 似有釀雪意, 同行越趨欲退期. 余則贊決而隨之.”

12) 安錫徹, 「後雪岳記」, “余之入僅爲七日, 而所睹無多, 良可歎矣. 若要詳之, 則當用三十餘日.”

창흡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이전에는 설악산 외곽인 한계령 또는 미시령을 경유하였다. 양양-오색-한계령-원통-인제, 또는 양양-원암-미시령-용대리-원통-인제 길을 경유했다. 즉 설악산이 목적지가 아니라 금강산이나 동해안을 가면서 거치는 경유지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런데 김수증과 김창흡 이후엔 현재 설악산 탐방코스와 같은 한계사지-한계폭포-대승령-흑선동, 비선대-마등령-오세암-영시암-백담계곡, 양양-신흥사-내원암-계조암-울산바위는 물론 영시암에서 수렴동-봉정암-대청, 수렴동-가야동-봉정암/오세암 등 설악산 깊숙한 곳까지 발길이 닿는다. 김창흡이 처음에 한계령 부근에 있다가 백담계곡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후대 사람들의 유람 행로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김창흡과 직간접적으로 사승관계가 있던 후대인들에게 있어 설악산은 일종의 성지순례지로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대표적인 코스를 살펴본다.

- 南孝溫, 「遊金剛山記」
 (낙산사)관음전-양양부-소어령-오색역-면암-소솔령-면암-신원-원통역(합강정)-인제현
- 文益成, 「遊寒溪錄」
 현산성-향현-한령-백암-쌍폭대-옛 역터-절-형제령-소동령-한계사터-환희대-대승암-폭포-계령-생학대
- 俞瑒, 「關東秋巡錄」
 신흥사-식당암-신흥사(석식)-계조암-원암역(일박)-미시파-남교역-한계사-사자봉-대승암-상승암-망폭대-(사자봉 동쪽)-한계사-인제현
- 尹鑄, 「楓岳錄」
 낙산사-신흥사-계조굴-미시령-난천-남교역-원통역-가음여리-광치어
- 金壽增, 「寒溪山記」
 곡운정사-오리촌-가현-원천역-낭천읍-대리진-관불현-방천역-서사에-함춘역-작

은고개-부령동-반정-교탄-원통역-고원통-운홍사-소개촌-옥류천-사암봉-한계사엠티-진목전-정금발사-한계사엠티-소개촌-원통-부령-함춘역-방천-낭천-원천-계상사-명지현-곡운정사-화음동

- 金壽增, 「遊曲淵記」
 인제현-합강정-덕산현-한계-채하봉-사암봉-옥류천-한계사지-한계폭(자연대)-대승암--상승암(사미대)-길동-이선동-웅정동-벽운계-길동-황장우-격산(천춘령)-부전암-포전암-허공교-오로봉-백연정사-남교역-삼기현-인제관아
- 任適, 「東遊日記」
 신현- 만의역- 백천-인제-백담동-심원사-봉정암-대승암-자연대-인제
- 洪泰猷, 「遊雪嶽記」
 인제현-삼차령-난계역-갈역촌-곡백담-심원사-삼연정사-유홍굴-십이폭동-봉정암-유홍굴
- 金樛, 「游楓嶽記」
 합강정-삼기령-남교역-갈역-난정-미시령-도적폭포-화암사-원암역-계조굴-신흥사-식당암-신흥사
- 金昌翁, 「遊鳳頂記」
 영시암-유홍굴-가야동계곡-폐문암-장경굴-봉정암-쌍룡폭포-구곡담계곡-유홍굴-영시암
- 金昌緝, 「東遊記」
 선유곡-홀인령-가력-백담계곡(예연-광암-상암-계기-학암-포전암-부전암)-심원사-삼연정사(영시암)-수렴동-영시암-남교역-원통역-합강정
- 朴聖源, 「寒雪錄」
 인제-합강정-덕산-원통-한계리-대승폭포-대승령-흑선동계곡-수렴동-영시암-구곡담계곡-쌍룡폭포-봉정암-가야동계곡-오세암-만경대-심원사-백담계곡-갈역-남교-원통-인제

• 蔡之洪, 「東征記」

상운역-신흥사-와선대-배선대-신흥사-내원암-계조굴-청간정

• 李福源, 「雪嶽往還日記」

양구-두모령-인제-원통-삼령-갈역-백담계곡(두타연-학암-광석)-조연-심원사-수림동-구곡담계곡(쌍룡폭포)-사자현-봉정암-가야동계곡-오세암-만경대-영시암-원통-광치계곡

• 安錫徽, 「雪岳記」

낙산사-신흥사-계조굴-신흥사-와선대-비선대-금강굴-저항-오세암-유홍굴-구곡담계곡-봉정암-대청봉-봉정암-가야동계곡-유홍굴-영시암-백담사-백담계곡-갈역-남교-한계리-옥류천-한계사-대승폭포-대승암-만경대-대승령-한계리-원통-합강정

• 丁範祖, 「雪嶽記」

양양-신흥사-시선대-마척령-오세암-봉정암-쌍룡폭포-영시암-흑선동계곡-대승령-대승폭포-비선동-신흥사

• 金夢華, 「遊雪嶽錄」

양양-신흥사-계조굴-식당동-만경령-영시암-수림동-쌍룡폭포-봉정암-오세암-만경대-영시암-대승령-대승폭포-오색령-오색-양양

• 李東沆, 「暹菴海山錄」

낙산사-강선대-신흥사-계조굴-내원암-극락암-비선대-극락암-완항령-황룡담-백담사-심원사터-영시암-만경대-오세암-봉정암-수림동-영시암-저취령-한계산-상승암-대승암-한계폭포-한계사터-옥류동-한계촌-원통점-합강정

• 權用正, 「雪嶽內記」

한계리-옥류천-한계사-대승폭포-대승령-영시암-수림동-백운동-오세암-만경대-백담사-남교-십이선녀탕

• 金錦園, 「湖東西洛記」

한계리-옥류천-대승폭포-대승령-흑선동계곡-백담사-영시암-수림동

4. 숙박지 및 동행자

박성원은 설악산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지 못한 이유에 대해 “대개 산 안에 절이 없고, 단지 淸寒子가 거처하던 五歲庵이 萬景臺 북쪽에 있고, 深源寺가 비로소 淵翁에 의해 개창되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람하는 사람들이 의지하여 머물 곳이 없어서”¹³⁾라고 스스로 답을 하였다. 산속에서 유람객들이 머물 장소는 절밖에 없는데, 설악산은 금강산에 비해 절이 매우 적어 유람객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한계령을 경유하여 인제와 양양 사이를 오갈 경우, 한계리에 있는 운흥사에서 숙박한 경우가 있었다. 김수증과 김창협은 한계사가 불타자 새로 창건한 운흥사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한계사가 폐찰되기 전에는 한계사에서 머물기도 했다. 김수증은 한계사를 지나 한계령 쪽으로 가다가 김창협이 농노가 머물던 집에서 자기도 했다. 안석경은 한계사 주변의 민가에서 신세를 졌다. 한계령을 넘어 양양 쪽은 오색역과 오색촌, 오색석사가 쉴 곳을 제공해 주었다. 미시령을 통과할 때는 남교역과 화암사를 이용했다. 미시령 아래에 있던 원암역을 이용한 경우도 보인다.

한계령과 미시령을 통과하지 않고 설악산의 심장부를 여행할 경우 절에서 묵을 수밖에 없었다. 내설악의 경우 출발할 때는 지금의 용대리에 있던 갈역에서 묵는 경우도 있었지만, 민가에서도 묵었다. 본격적으로 산행을 할 때는 백담사의 전신인 선구사와 심원사에서 짐을 풀었다. 백담사가 창건되기 전에는 백담사 건너편에 있던 민가에 신세를 졌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영시암과 오세암, 그리고 봉정암에서 반드시 묵어야 했다. 이곳에 절이 없었던 시기에 兪泓은 바위 밑에서 묵었다. 그래서 그 굴은 兪泓窟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외설악을 방문한 사람들이 즐겨 찾던 곳은 신흥사다. 신흥사에서 울산바위로 가다가 내원암에서 잠

13) 朴聖源, 『臥遊錄』, 「寒雪錄」, “蓋山內無寺觀, 只有淸寒子所居五歲庵者, 在萬景臺北, 深源一寺又始自淵翁, 古今游人無由止接.”

을 청하기도 했다. 상황이 불가피한 경우에 빈 암자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김수증은 대승령을 넘다가 텅 빈 대승암에서 피로를 풀었다.

조선시대에 설악산을 홀로 유람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대개 몇 명이 함께 산을 오르곤 했다. 친척이나 지인들이 동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익성은 양양 군수로 있을 때, 崔蹈景과 裴景孚,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한계를 유람했다. 정범조는 조카뻘 되는 申匡道와 사위 兪孟煥, 그리고 아들을 대동하였다. 홍태유는 친척과 이종사촌, 그리고 조카와 함께 하였다. 김몽화의 옆에는 강원도 관찰사와 인제군수가 있었다. 공식적인 동행자들이며, 당연히 유산기에 이름이 올라 있다.

그러나 유산기에 제대로 이름 석 자 올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산행을 하는데 안내자 역할을 하였으며, 肩輿[사람 둘이 앞뒤에서 어깨에 메는 가마]로 지체 높으신 분들을 태우고 가파른 산을 올랐다. 이밖에도 잡다한 수발을 들어야 했다. 김창협이 「동정기」에 등장하는 몇몇 중은 유람객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물이 거세게 쏟아지도록 나무와 돌을 이용하여 폭포 상류를 막았다가 물을 터뜨리는 일까지도 하였다. 이들이 없었더라면 유람객들은 설악산에 오를 생각을 애초에 하지 못했을 것이다. 임적의 경우가 이를 잘 보여준다.

유람하는 사람은 모두 서쪽에서 오르는데 이 길을 가는 자는 매우 드물다. 그러므로 앞은 떨어지고 돌들은 어지럽게 있는데 밟은 흔적이 전혀 없다. 그래서 쫓아온 스님에게 앞으로 가서 길을 찾게 했다. 가끔 나무를 베고 돌을 쌓아 길을 표시한 것이 있는데, 자세히 찾아야 겨우 알 수 있다. 그러나 길이 모두 위험하여 어떤 때는 뛰어 넘어서 지나가고, 어떤 때는 버랑을 따라 엎드려서 올라간다. 어떤 때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버티게 한다. 비록 劔閣의 잔도도 반드시 이처럼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쫓아온 스님은 省文과 義俊 두 사람이다.¹⁴⁾

14) 任適, 『老隱集』 卷3, 「東遊日記」, “遊人皆從西而上, 行此路者甚罕. 故葉落石亂, 絕無履迹. 使從僧前行覓路. 間有伐木壘石以表路者, 寸寸尋覓, 僅可以識. 而路皆危險, 或超越而過, 或攀崖匍匐而上. 或使人前挽後撐. 雖劔閣棧道, 必不如此危矣. 從僧, 省文, 義俊二人也.”

김수증이 대승령을 넘을 때는 백담계곡에 살고 있던 池一 스님이 앞서서 길을 안내하였고, 覺炯 스님과 廣學 스님이 뒤를 따랐다. 김몽화와 만난 관찰사는 하인에게 첩피리를 불라고 명하였으니, 하인은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복원의 행차가 가장 화려했다. “아침을 일찍 먹고 가마에 올랐다. 가벼운 식량은 가져가고 인제의 조리사를 돌려보냈다. 여행 도중 가마를 따르는 자 중에 긴요하지 않은 사람은 가려 줄였다. 시중드는 아전에는 金翠光, 공방엔 朴枝靑, 통인엔 任翠彬, 흡창엔 翠星, 후배엔 末男과 老味, 도척은 莫同이다.”¹⁵⁾라고 기록되어 있어 많은 인원이 그의 유람에 동원되었음을 알려준다. 이들은 운이 좋아 유산기에 이름이나마 남긴 사람들이다. 산행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많은 사람들은 아예 언급이 없거나, 중과 하인이란 일반명사로 남아 있을 뿐이다.

5. 등산 방법 및 관련 인물

조선시대의 유람객들은 험한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걸어야 했지만 조금만 길이 평탄하다 싶으면 가마인 肩輿와 藍輿를 이용하였다. 김수증의 「유곡연기」를 잠시 들여다본다.

남여를 타고 동쪽 언덕을 지나 시내를 건너니 바로 폭포의 하류다. 돌길이 매우 험하여 언덕을 기어서 올랐다. (중략) 남여에서 내려 내려가자니 산비탈은 높고 위험하며 얼음과 눈이 복사뼈까지 빠져 발붙이기 어렵다. 간혹 산골짜기 물을 뛰어 넘었다. 큰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대나무가 뻗뻗이 우거졌다. 조금 평탄한 길에서 시중이 남여에 오르기를 청했으나, 아직도 경사가 급해서 걷기도 하고 쉬기도 했다.¹⁶⁾

15) 李福源, 『雙溪遺稿』 卷10, 「雪嶽往還日記」, “朝食登輿. 齋輕糧, 選送隣蹄刀尺. 揀落行中不緊人隨輿者. 隨陪金翠光, 工房朴枝靑, 通引任翠彬, 吸唱翠星, 後陪末男, 老味, 刀尺莫同也.”

김수증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람객들이 그러하였다. 박성원의 「한설록」에는 “여기부터 돌길이 끊어져서, 肩輿를 사용할 곳이 없다. 드디어 뒤에 떨어져 옷깃을 찢고 신발을 동여매고, 각기 명아주를 꺾어 지팡이를 만들게 했다. (중략) 매번 급하게 잘려나간 곳을 만나면 스님들에게 좌우에서 부축하게 하고 발을 연이어서 걸으며, 몸을 오그리고 앞으로 갔다.”¹⁷⁾라고 기록되어 있다. 가마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도 유람객들은 가마를 메던 사람들의 손과 발을 빌려야했다. 한편 험한 길을 갈 때는 줄을 이용하곤 했다. 이복원의 「설악왕환일기」에는 “한 번 발을 잘못 헛디디면 만 길 깊은 계곡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니 가슴이 두근거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이에 남여에서 내려와 줄로 허리와 배를 묶고 한 사람이 뒤를 따르면서 줄을 잡아당기게 하였다. 또 한사람은 앞에 있게 해서 어깨와 겨드랑이를 부여잡고서야 비로소 하산을 감행하였다.”¹⁸⁾라고 기록되어 있고, 김창흡의 「유봉정기」에는 “날이 밝자 재촉하여 밥을 먹고 봉정암 앞의 길을 취해 12폭포를 찾아가려고 했다. 나는 일찍이 20년 전에 폭포를 찾아 이곳을 지났는데, 마치 떨어질 듯 아득하였었다. 중 석한이 한번 와봤는데 가는 길이 매우 험하여 반드시 허공에 올라 줄을 붙잡고 내려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봉정암 중에게 줄을 빌렸다.”¹⁹⁾라고 기록되어 있다. 험한 길을 통과할 때는 줄이 필수였으니, 가마를 타는 것을 빼곤 요즘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6) 金壽增, 『谷雲集』 卷4, 「遊曲淵記」, “去輿而下, 山坂峻急, 氷雪沒踝, 不能著足. 或超越澗壑, 大木蔽天, 叢竹蒙密, 少平處, 僂人請上輿, 而猶覺傾危, 或步或憩.”

17) 朴聖源, 『臥遊錄』, 「寒雪錄」, “每當急截處, 使僧徒左扶右擁連足而步, 竦身而前.”

18) 李福源, 『雙溪遺稿』 卷10, 「雪嶽往還日記」, “一蹉跌則滾入萬丈深谷, 悸不能前. 乃脫藍輿, 索紳腰肚, 使一人從後挽之. 又使一人在前攀住肩腋始敢下.”

19) 金昌翁, 『三淵集·拾遺』 卷23, 「遊鳳頂記」, “天明催飯, 取道菴前, 將尋十二瀑布也. 余曾於二十年前, 尋瀑經歷于此, 而若墮渺茫. 閑納自云一到而所歷絕險, 必騰空緣縊而下. 故借得繩索於菴僧.”

이 당시 가마를 메던 사람들은 스님들이 대부분이었다. 가마를 메는 스님을 남여승이라고 불렀다. 이동항의 「해산록」을 보자.

일찍 밥을 먹었다. 신흥사의 남여승이 왔다. 남쪽으로 비선대와 와선대로 들어가는데, 모두 물속의 기이한 돌들이다. (중략) 마침내 남여를 타고 서쪽 계곡으로 한나절 들어가니 험한 길은 모두 나무 그늘 아래 있다. 거의 15리를 가서 야 산골 시냇가 물이 맑은 곳에 앉아서 남여승들과 밥을 먹었다. 여기서부터 지팡이를 짚고 올라갔다. 고개 마루가 멀지 않자 산세는 점점 급해진다. 너털바위는 쌓여있고 좌우의 봉우리는 정상이 희니 완전히 예전에 본 풍악산과 똑 같다. 정상에 올랐으나 백담사의 남여승은 오지 않아, 마침내 길을 안내할 중 한 사람만이 앞길을 인도하여 내려왔다.²⁰⁾

가마를 멜 중이 없는 경우에는 주변의 주민들을 불렀다. 박성원의 「한설록」에는 “동쪽의 오세암으로 들어가려하는데 산에는 큰 절이 없고 살고 있는 백성도 없어서 남여꾼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새벽에 절의 스님에게 산 밖의 여러 마을로 급히 공문을 띄우게 하였다. 조금 있으니 남여꾼들이 5리 또는 10리에서 왔는데 모두 며칠 동안 먹을 양식을 가지고 와서 기다린다. 대체로 이 산도 역시 풍악산의 예처럼 백성들에게 부역이 없으므로 명령을 들으면 즉시 달려온다.”²¹⁾라고 기록되어 있다. 도시락을 지참하고 며칠씩 산 속에서 가마를 메야했던 지역 주민들과 스님들의 어깨와 발이 없었으면 애초에 설악산을 오를 계획을 세우지 못하였을 것이다.

栗谷은 「金時習傳」에서 김시습의 행적에 대해 강릉과 양양 등지로 돌

20) 李東沆, 「海山錄」, “早食新興僧來, 南入飛仙臺臥仙臺, 皆水中奇石也. … 遂輿入西洞半日崎嶇之路, 盡在樹陰行幾十五里, 坐山洞水清處輿僧攤飯. 自此杖策而上, 嶺脊不遠而山勢漸急, 礫石堆積左右巖巒皓皓頭白, 宛然楓岳舊面也. 山絕頂百潭寺輿僧不來 卒路僧一人導前而下.”

21) 朴聖源, 『臥遊錄』, 「寒雪錄」, “將東入五歲菴, 而山無巨剎, 且鮮居民, 輿軍不備. 清曉使寺僧飛文山外諸村俄而諸軍或自五里或自十里, 皆齋數日糧來待. 蓋此山亦楓岳例民無身役, 故聽令即到也.”

아다니며 놀기를 좋아하고, 설악·한계·청평 등의 산에 많이 머물렀다고 기록하였다. 許穆은 「清士列傳」에서 楊州의 水落山, 壽春의 史吞鄉, 동해 가의 雪嶽山과 寒溪山, 月城의 金鰲山은 모두 김시습이 즐겨 머물렀던 곳이라고 하였다. 설악산과 깊은 관련이 있는 최초의 유명인이 바로 김시습임을 알려주는 글이다. 이후에도 유산기에 김시습은 자주 등장한다. 안석경의 글은 감동적이다.

3~4리를 가서 五歲菴으로 들어갔다. 오세암은 매월당 金公에게서 유래한다. (중략) 암자엔 매월당의 畫像 두 폭을 진열했다. 하나는 유학자의 초상이고 하나는 스님의 초상인데 수염이 있다. 나는 손을 씻고 옷을 단정히 하고 유학자의 초상에 참배했다. 우러러보니 우뚝한 풍모와 기운이 사람을 감동시킨다. 높은 이마와 굳센 광대뼈, 힘찬 눈썹과 빛나는 눈, 오뚝한 코와 무성한 수염은 참으로 영웅호걸의 외모이다. 그러나 恨을 깊이 생각하여 어렵듯이 엉켜 모여 있는 것이 오랜 세월에도 풀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端宗이 왕위를 양보하자 六臣은 임금을 따라 죽었다. 매월당은 비록 머리를 깎고 세상을 피해 궁벽한 산에서 늙어갔으나 아직도 빛남이 있으니, 드러나는 것을 깊이 숨기고 헤아리면서 採薇 一節로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치려고 하지 않으셨는지인가?²²⁾

김시습은 오세암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일찍이 黔洞에 살았는데, 검동은 中雪岳의 남쪽에 있다고 알려졌다. 검동은 지금의 양양군 ‘범수치리’다. 金錦園은 「호동서락기」에서 “설악에는 옛날에 김창흡의 영시암과 김시습의 오세암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자취가 남아 있지 않아 비록 볼 수 없지만 설악의 이름이 이 두 사람 때문에 더욱 알려져 금강과 어깨를 겨루게 되었다.”²³⁾라고 하였다.

22) 安錫徹, 「後雪岳記」, “又三四里入五歲菴. 菴因梅月金公. … 菴設梅月畫像二幅. 一則儒像, 一則釋像, 而有鬚髯. 余盥手整袍展拜於儒像. 仰觀魁然風氣動人. 峻額勁鬚剛眉晶目高峭髯真有英傑之表. 而沈慮滯恨, 隱隱凝聚之千古不可散者, 何哉. 方我端王之遜位, 而六臣之殉君也. 雖已毀形遁世, 老於窮山, 而尚有炯炯, 深費揣摩, 不欲採薇一節自足而止耶.”

23) 金錦園, 『錦園堂集』, 「湖東西洛記」, “雪嶽舊有金三淵永矢庵. 及金清寒五歲菴, 今其遺墟, 雖不可見, 而雪嶽之名, 蓋以二公益著, 與金剛并峙矣.”

김시습보다 더 깊은 인연을 맺고 있어 설악산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김창흡이다. 김창흡은 「유봉정기」에서 설악산의 주인이 된 후부터 백담계곡의 원류와 크고 작은 설악의 고개에 있는 것들을 모두 예워 싸 소유하고 있어서 마음대로 오갈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창흡이 설악산의 진정한 첫 번째 주인이라는 평가가 지나치지 않는다. 그가 주인이 되면서부터 수많은 손님들이 설악산을 찾았다. 김유는 「유봉정기」에서 “갈역은 曲百潭 골짜기 입구에 있다. 子益 김창흡의 자의 편지가 왔는데 병으로 나올 수 없다고 한다. 驛村에는 서너 채의 집들이 있으나, 친연두가 성하여 同甫가 꺼려한다. 이때 子益은 곡백담 위에 있는 深源寺에 있어서 가서 같이 자고 싶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이 절에도 전염병의 기운이 있다기에 부득이 肩輿로 고개를 넘을 계획을 세웠다.”²⁴⁾라고 하여 김창흡을 만나고자 했으나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이복원은 「설악왕환일기」에서 영시암터를 방문하고 설악산의 산봉우리와 수석의 명칭을 김창흡이 지은 것이 너무 많아 전부 기록할 수 없다고 실토했다. 설악산의 술한 지명들이 김창흡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실을 보여준다. 안석경은 「후설악기」에서 “김창흡 선생은 큰 학자인데 터만 남겼으니 사당을 세우고 서원을 설립하여 사방의 배우는 사람을 오게 해야 한다.”²⁵⁾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김창흡은 설악산의 이곳저곳에 집을 마련하여 명실상부하게 설악산의 주인이 되었다. 제일 먼저 터를 마련한 곳은 한계령이다. 큰아버지인 김수증은 조카인 창흡이 寒溪의 제일 깊은 곳에 살았다고 언급하였고, 박성원은 淵翁이 처음 寒溪의 自寧田에 거처할 때, 하루는 谷雲 선생을 모시고 처음 이 산을 방문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김창흡이 한계령에서 백담계곡 쪽으로 옮겨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은 百淵精舍이다. 1698년 봄

24) 金樸, 『儉齋集』 卷20, 「游楓嶽記」, “驛在曲百洞口. 子益書來, 病不得出. 而驛村只三四家, 痘疫方盛, 同甫忌之. 時子益方在潭上深源寺, 欲往與聯枕. 而村人又言寺有癘氣, 不得已爲肩輿嶺計.”

25) 安錫徹, 「後雪岳記」, “先生儘大儒卽遺墟, 宣立祠設書院, 以來四方之學者.”

에 설악산 곡백담의 백연정사가 완성되었다고 연보는 알려준다. 그의 나이 53세인 1705년에 백담계곡 벽운사 옆에 碧雲精舍를 짓기 시작하여 이듬해 완성한다. 1708년에 벽운정사가 불타자 심원사로 거처를 옮겼다가, 이듬해 永矢庵을 짓는다. 영시암에 거주하면서 1711년에는 葛驛精舍를 건립하기에 이른다. 그의 유명한 한시인 「葛驛雜詠」이 지어진 곳이다. 이의숙은 葛驛의 남쪽에 옛날 三淵翁의 精舍가 있었다고 「曲百潭記」에 적어놓았다.

김창협은 문인이자 조선후기 대표적인 학자인 陶庵 李穡도 설악산에 거처를 마련하진 않았지만 자주 찾았다. 그는 壬寅土禍를 당하여 인제에 은둔하였는데 이때 설악산의 뛰어난 풍경을 무척 사랑하여 늘 오고 가며 소요하였다.

III. 설악산을 이해하는 네 개의 키워드

설악산을 찾는 사람마다 설악산은 제 각기 다른 이미지로 다가선다. 그러므로 설악산에 대한 평어는 다분히 주관적이다. 그런데 유산기를 읽다보면 작자들이 묘사하고 있는 설악산에 대한 느낌과 이미지는 몇 개의 평어로 아우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隱·聖·奇·靈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1. 隱者의 산

설악산을 찾은 대부분의 유람객들은 설악산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워하였다. 유창이 대표적인데, 「관동추순록」에서 “세상에서 關東의 名山을 논하는 자는 금강산을 입에 흘려넘치도록 칭찬하며 말한다. (중략) 그러나 설악과 한계에 이르러서는 본 사람이 진실로 적고 아는 사람 또한 드물어 기이함을 칭하는 자가 없다. 세상의 허황된 명성은

진실로 이와 같다. 명성은 본래 虛한 물건이니, 사람과 산이 어찌 다르랴! 산과 물이 맑은 것은 스스로 맑은 것이고, 높은 것은 스스로 높은 것이다.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과 알려지지 않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으랴! 산과 물은 스스로 한스럽게 여기지 않는데, 나는 한스럽게 여기니 어리석은 것이다.”²⁶⁾라고 하였고, 김몽화는 「유설악록」에서 “유산록에는 풍악산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지만 설악산에 관한 것은 조금도 볼 수 없다. 고매한 스님이 머무는 곳과 세상을 떠난 선비들의 은거 장소가 매몰되어 세상에 칭해지지 않도록 하였으니, 아마도 산수의 遇와 不遇도 운수가 있어서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 같다.”²⁷⁾라고 하였다. 사람처럼 산도 운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악산은 아직 不遇하다고 아쉬워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설악산을 은자의 산으로 부르기에 이른다. 홍태유는 「유설악기」에서 “내가 유명한 산을 본 것이 많은데, 오직 금강산이 이 산과 견줄만하다. 나머지 산들은 설악산과 맞설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금강산의 명성은 중국까지 퍼졌으나 이 산의 승경은 비록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 적으니, 이 산은 실로 산 가운데 隱者이다.”²⁸⁾라고 평가하였다. 설악산이 불우하여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한 유람객들은 설악산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유산기를 작성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26) 俞場, 『秋潭集』 卷貞, 「關東秋巡錄」, “世之論關東名山者, 稱道金剛, 固不容口. … 而至於雪岳, 寒溪, 則見者固少而知者亦罕, 莫有稱其奇焉, 世間浮名, 固如是也. 名本虛底物, 人與山豈異哉. 之山也之水也, 清者自清, 高者自高. 其於人知不知, 何與哉. 山與水不自以爲恨, 而余乃恨之, 其亦癡矣.”

27) 金夢華, 『七巖文集』, 「遊雪嶽錄」, “以故遊山錄多出於楓岳, 而不少見於雪嶽. 使高人住錫之地, 逸士幽棲之所, 埋沒而不見稱於世, 豈山水之遇不遇, 亦有數存於其間耶.”

28) 洪泰猷, 『耐齋集』 卷4, 「遊雪嶽記」, “余見名山多矣, 惟金剛可與此山相伯仲. 其他無有能與抗者. 然金剛名播中華, 而此山之勝, 雖東人, 知者蓋寡, 則此山實亦山之隱者也.”

2. 산 중의 聖人

은자의 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聖人과 같은 산으로 평가한 이들도 있다. 박성원은 「한설록」에서 “나는 이 산을 미처 보지 못하였을 때는 단지 산 중의 은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보고 나서 산 중의 聖人이라는 것을 알았다.”²⁹⁾라고 극찬하였다. 그러면서 설악산은 뛰어난 경치이지만, 깊숙하기 때문에 유람하는 사람이 드물어서 세상에 알려진 것이 금강산만 못하니, 사람에 비유한다면 진실로 덕을 숨긴 군자라고 평하면서, “금강산은 斷髮嶺에서 진면목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설악산은 매번 우뚝서 있는 높은 산봉우리를 보고, 번번이 이 산의 정상이라 여겼으나, 가까이 가서 보면 도리어 아닌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는다. 마치 공자 문하에 들어간 자가 공자의 덕행과 용모를 보지 못하고 여러 현자들을 진짜 성인으로 생각하다가, 昇堂하고 入室하여 온화한 모습을 우러러 본 연후야 비로소 삼천 제자들이 단지 문과 답장 사이에서 물 뿌리고 빗질하는 자임을 알게 되는 것과 같다.”³⁰⁾고 하였다. 설악산을 너무나 고매한 덕과 인품을 지녀 그 진면목을 알 수 없는 공자에 비유하여 성인과 같은 반열에 올라놓은 것이다. 최남선이 『조선의 산수』라는 강연집에서 “탄탄히 짜인 상은 금강산이 勝하다고 하겠지마는 너그러이 퍼인 맛은 설악산이 도리어 승하다고도 하겠지요. 금강산은 너무나 顯露하여서 마치 路傍에서 술과는 색이같이 아무나 손을 잡게 된 한탄이 있음에 비하여, 설악산은 절세의 미인이 그윽한 골속에 있으되 고운 樣姿는 물속의 고기를 놀래고 맑은 소리는 하늘의 구름을 멈추게 하는 듯한 뜻이 있어서, 참으로 산수풍경의 지극한 취미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금

29) 朴聖源, 『臥遊錄』, 「寒雪錄」, “余未見茲山, 只以爲山中之隱. 及見之乃知爲山中之聖也.”

30) 朴聖源, 『臥遊錄』, 「寒雪錄」, “其視金剛之使人未到山下而先見眞面目於斷髮嶺者. 其淺深隱見未可以同年語也. 自入洞門, 每見峻峭特立者, 輒謂此山上頂, 而近者却非者不止一二, 如始入孔門者, 未及見夫子德容, 以有若諸賢爲眞聖人, 及昇堂入室, 仰瞻申申夭夭之色, 然後始知三千羣彥只是門牆間洒掃者也.”

강보다도 설악에서 그 구하는 바를 비로소 만족케 할 것입니다.”³¹⁾라고 평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3. 봉우리의 기이함

안석경은 내설악과 외설악을 모두 여행하고 지은 「동행기」에서 김창흡이 설악산과 금강산을 難兄難弟라고 평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창흡이 설악산에 살아서 사사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한편 그는 「후설악기」에서 “기이한 물은 바람을 끼고 위에서부터 합쳐져서 흘러간다. 백담사가 첫째이고, 식당의 물이 둘째며, 한계의 물이 다음이다. 깨끗하고 빛나는 온갖 골짜기와 봉우리는 깊숙이 가두어두고 아무도 모르게 숨는 것에 똑같이 밖으로 빼어남을 드러내는 것은 백 중 한 둘에 지나지 않는다. 아! 또한 기이하구나! 이것은 대개 높고 두터우나 빼어남을 감추고 넓지만 신령스런 땅을 덤수룩하게 감추며 바깥을 흐리고 질박하게 하여 자신을 사랑하여 빛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중략) 오직 성대한 덕이 조용하면서 많은 능력을 온축한 자가 이에 짝할 수 있다. 군자가 오르면서 보는 것을 즐거워하고 귀의하는 것이 마땅하다.”³²⁾라고 설악산에 대한 감상평을 남겼다. 이동항은 「해산록」에서 세상 사람들은 설악산의 형세는 금강산만 못하고, 웅대하기도 금강산만 못하나, 깊고 아득하고 멀며, 험절한 것은 풍악산보다 뛰어나다고 평하면서, “지금 30리의 긴 골짜기를 빠져나오니, 작은 시냇물이 좌우에서 서로 모이고, 깊은 숲과 큰 나무들은 앞뒤로 에둘러

31) 최남선, 『조선의 산수』.

32) 安錫敬, 「後雪岳記」, “若水之奇則挾風. 頂而合流過. 百潭寺者上也, 食堂之流次之, 寒溪之流又次之. 而漱弄千壑映發萬峯, 均於幽閉秘藏, 而其見秀於外者, 不過百一二. 嗚呼. 亦異哉. 是蓋峻厚而蘊藏英秀, 弘博而葆蓄靈妙, 混朴其外, 不自夸耀. 比之文章, 則昌黎之掩遏萬怪於渾轉蒼海之裏者耶. 較之武略, 則汾陽之包括千變於崇深寬簡之中者耶. 惟盛德之從容而蘊蓄乎多能者, 獨可以配之. 宜君子之樂於攀觀, 而爲之依歸也.”

막아서 그들이 들고 찬 기운이 모골을 찢어대고, 짙은 푸른색은 의복을 적신다. 별세계의 아득한 발걸음은 풍악산의 百塔과 九龍淵보다 뛰어나며, 물과 돌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 한 계곡 안의 기이함과 장관은 한 발자국도 허송할 것이 없으니, 곧 萬瀑洞이 상대할만한 곳이 아니다.”³³⁾ 라고 설악산의 기이한 풍광을 설파하였다. 두 사람 모두 설악산을 이해할 때 ‘승’가 중요한 키워드임을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4. 물의 신령스러움

권용정의 「설악내기」는 기이함을 넘어 신령스러운 설악에 대해 언급한다.

기이함을 말하는 자가 매번 말하길, “설악산이 금강산보다 뛰어납니다.”라고 한다. “무엇이 뛰어납니까?”라고 물으니, “물이 뛰어납니다. 금강산의 물은 쁘스러운데, 설악산의 물은 神靈스럽습니다. 성스러운 것은 類推할 수 있지만, 신령스러운 것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설악의 물은 변화가 많아서 한결같이 생각 밖으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물이 뛰어납니다. 설악산은 안과 밖이 있습니다. 내 설악은 인제에 속하고, 외설악은 양양에 속합니다. 물의 기이함은 내설악이 모두 보여줍니다.”라고 한다.³⁴⁾

금강산은 일만이천 봉우리가 뛰어나고 설악산은 일만이천 계곡이 뛰어나다는 말도 전해지듯이 설악산은 기이한 봉우리 뿐만 아니라 많은 계곡에서 흐르는 물도 또한 장관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고매한 덕과 높은 인품을 지닌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한계를 지

33) 李東沆, 「海山錄」, “今行出三十里長谷 支泉齋澗左右相合 深林巨木前後擁遮 陰凝之氣遍於毛骨 積翠之色 濕於衣巾 壺中杳杳之行有甚於百塔九龍 而水石之線亘 一洞奇壯之觀 迨無虛步則非萬瀑洞之可敵也”

34) 權用正, 『小遊雜著』, 「雪嶽內記」, “譚奇者每曰, 雪嶽勝金剛何勝乎. 曰水勝. 金剛之水聖, 雪嶽之水神. 聖猶類也, 神則不測. 雪嶽之水其變多方, 一出情想之外. 故曰水勝. 雪嶽有內外, 內雪屬隣蹄, 外雪屬襄陽. 水之奇內雪盡之云.”

낸다. 그에 비해 설악산은 인간세계를 뛰어넘은 천상의 세계, 즉 神靈하다고 평하였다. 지상에 존재하는 설악산을 신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인 신령스럽다고 평가한 것이기에 설악산에 대한 최고의 극찬이라고 할 수 있다. 권용정은 이어서 대승폭포는 웅장하면서 신령스럽고, 수렴동은 그윽하면서 신령스러우며, 탕수동은 교묘하면서 신령스럽기 때문에, 설악산은 물이 신령스럽다는 것이 참말이라고 강조하였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설악산을 유람하고 지은 유산기를 자료와 창작시기, 유산기의 저자, 산행하기 좋은 계절, 산행 코스, 숙박한 장소, 동행한 사람들, 산을 오르던 방법, 설악산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 등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그리고 유람객들에게 다가온 설악산의 이미지를 隱·聖·奇·靈이라고 하는 네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설악산 유산기는 설악산 한 곳을 유람한 후 지어진 것도 있지만, 다른 곳의 유람과 함께 기록되어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악산만 따로 한정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아직 발굴되지 않은 설악산 관련 유산기도 매우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굴된 기록만으로도 설악산을 관광 자원화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예컨대 선인들이 주로 이용하였던 설악산 탐방 코스 개발, 주요 인물과 에피소드를 이용한 스토리텔링 구성 등을 활용한다면, 설악산이 단순하게 빼어난 경치만 지닌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 선인들의 자취가 짙게 배어 있다는 점도 관광객들이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향후 관련 자료가 계속 발굴되어 축적이 된다면 우리 선인들에게 있어 설악산이 갖고 있는 의의가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參考 文獻>

權用正, 『小遊雜著』,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金錦園, 『錦園堂集』,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金夢華, 『七巖文集』, 『韓國歷代文集叢書』 1821, 경인문화사영인.
 金壽增, 『谷雲集』, 『韓國文集叢刊』 125, 한국고전번역원.
 金 棬, 『儉齋集』, 『韓國文集叢刊』 續50, 한국고전번역원.
 金昌翁, 『三淵集』, 『韓國文集叢刊』 167, 한국고전번역원.
 文益成, 『玉洞集』, 『韓國文集叢刊』 39, 한국고전번역원.
 朴聖源, 『寒雪錄』(편자미상, 『臥遊錄』, 규장각 소장본.)
 成海應, 『研經齋全集』, 『韓國文集叢刊』 275, 한국고전번역원.
 安錫徹, 『雪橋集』, 『韓國文集叢刊』 233, 한국고전번역원.
 俞 瑒, 『秋潭集』, 『韓國文集叢刊』 續33, 한국고전번역원.
 李東沆, 『遲庵文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李福源, 『雙溪遺稿』, 『韓國文集叢刊』 237, 한국고전번역원.
 任 適, 『老隱集』, 『韓國文集叢刊』 續66, 한국고전번역원.
 洪泰猷, 『耐齋集』, 『韓國文集叢刊』 187, 한국고전번역원.

강정화, 「동아시아의 名山과 名山文化 ; 지리산 유산기에 나타난 조선조 지식인의 산수인식」, 『남명학연구』 26,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김기영, 「관악산유산록의 작품 실상과 교육적 가치」, 『어문연구』 38, 어문연구학회, 2002.
 김선희, 「유산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삼각산 여행의 시공간적 특성」, 『문화역사지리』 21,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9.
 노규호, 「한국 遊山記의 계보와 두타산 遊記의 미학」, 『우리문학연구』 28, 우리문학회, 2009.
 박영민, 「18세기 청량산 유산기 연구」, 『한자한문연구』 1,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2005.
 안득용,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山水遊記 研究 : 農巖 金昌協과 三淵 金

昌翁을 중심으로」,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農淵 山水遊記 研究」, 『동양한문학연구』 22, 동양한문학회, 2006.
 ——, 「16세기 후반 영남 문인의 산수유기-芝山 曹好益 산수유기에 나타난 지연인식과 형상화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5, 민족어문학회, 2007.
 이경수, 「삼연 김창흡의 설악산 은둔과 한시표현」, 『강원문화연구』 26,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7.
 이혜순 외 3인,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 집문당, 1997.
 정치영,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I』, 민속원, 2007.
 최석기 외,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2007.

Abstract

A General Study on Soraksan Yusangi in Joseon dynasty
/ Heo Nam Wook*

The written record of the scenery and impressions of nature as taking a tour of mountains is excursion account, namely Yusangi(遊山記).

Excursion accounts of Soraksan(雪嶽山) were written during the late 15th and early 19th centuries. They'd been created intensively since the last half of 17th century. This is intimately associated with setting up Kim Chang-heup(金昌翁)'s own residence in Soraksan. In that sense, it cannot be emphasized enough that how great importance he is on Soraksan Yusangi.

People visited Soraksan, mostly, in spring and fall. It can be hard to find any writings of winter's climbing, and there are only two writings of summer's.

The course of sightseeing excursion can be largely divided into before and after Kim Chang-heup and Kim Soo-jeung: Before, it should make a detour via Hangyeryong and Misiryong; after, the course is exactly the same as the current touring trails. When one climbs via inner-sorak, unpack in Sungusa, the predecessor of Baekdamsa, and Simwonsa.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Baekdamsa, private houses across the temple were the place to stay. And going further into the mountain should stay at Youngsiam, Oseam and Bongjeongam. The favorite place of outer-sorak visitors is Shinhungsa. On the way Ulsanbawi from Shinhungsa, some of them put up at Naewonam.

It's possible to converge into several critical remarks about Soraksan. It's described as retirement[隱], sacredness[聖], and also characterized by

quaintness[奇] or mysticity[靈]. Maybe there are various other perspective as well. However, it won't get much beyond the four traits.

【Key words】 Yusangi(遊山記), Soraksan(雪嶽山), Kim Chang-heup(金昌翁), Retirement[隱], Sacredness[聖], Quaintness[奇], Mysticity[靈]

* Professor of Kangwon National Univ. / heonw@kangwon.ac.kr

투고일 : 4월 20일, 심사일 : 5월 19일, 게재 확정일 : 6월 8일